프랑스의 문화메세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전

손 동 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프랑스 문화부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메세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재정비를 시행

프랑스 문화 메세나는 코로나 19를 겪는 동안 보다 연대적이고 보다 전국적으로 재정비되었음

프랑스 국립 오페라-코믹 극장 사장인 올리비에 망테이(Olivier Mantei)는 2021년 9월 30일 개최된 « 문화 메세나 : 위기의 시기동안의 평가와 전망(Mécénat culturel : bilan d'un temps de crise (s) et perspectives) »에서 문화 활동 재개 이후 극장의 훌륭한 성과를 강조하며, 이번 시즌 오페라-코믹 극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피델리오'가 매진되었다고 밝혔음

다른 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코믹 극장의 공연작들은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극장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함. 올리비에 망테이 사장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정부와 문화 메세나의 지원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극장들은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이것은 프랑스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화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음.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위기가 온 분야가 있는가 하면, 국가와 문화 파트너의 지원을 받은 분야도 있었음. 뤽 알레르(Luc Allaire) 문화부 사무총장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가 문화 메세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음

위기적 측면에서는 박물관과 공연장의 폐쇄가 각종 수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줄리앙 베르나르(Julien Bernard) 전략컨설팅회사인 노바 컨설팅(Nova Consulting) 사장은 문화산업 분야는 2020년 수익이 111억 유로 감소했으며, 특히 가장 타격이 컸던 영화와 공연 분야는 각각 수익이 65%, 42% 감소했고, 비상업 분야 중 국립 박물관은 71%나 감소했다고 발표함.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음.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위한 20억 유로를 포함하여 136억 유로를 취약한 문화 기관에 지원했다고 밝혔음

한편 코로나 위기에도 문화 메세나는 안정적으로 지원되었음. 안-클레르 파슈(Anne-Claire Pache) 프랑스 비즈니스스쿨(ESSEC) 교수는 코로나 19 위기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부는 줄었지만, 민간 분야의 실질적 지원에 따른 공공 자금조달이 대규모 진행되었다고 밝혔음. 노바 컨설팅의 베르나르 사장은 기부 플랫폼의 경우 문화참여기금의 2.2배가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업 메세나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30% 증가할 정도였다고 강조했음

프랑스 문화기관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서 메세나에 대한 쟁점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음. 쟁점은 먼저 지리적 위치의 문제부터 시작됨. 보르도 국립 오페라의 메세나 및 개발부 책임자인 파니 푸르니에(Fanny Fournier)는 "후원은 지리적 문제이고 우리는 코로나 위기동안 이 문제가 개발의 실마리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목도하였다"고 말했음

한편 다른 이들에게는 공동작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음. 샤틀레 극장(Theâtre du Châtelet)의 개발부장인 모니카 트리키(Monia Triki)는 "메세나 파트너와 공동 구축은 아주 중요했다. 샤틀레 극장이 개발한 시민 예술 공장은 직업 고등학교에서 예술 워크숍을 운영하는 전통적으로 해온 작업이다. 코로나 위기에 맞서 비록 대면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전용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다양한 문화작업을 상상하고 젊은이들이 도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음. 베네딕트 비아르(Bénédicte Wiart) 베르사유 소사이어티(Versailles Society) 부회장은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2016년부터 젊은 회원 영입에 노력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은 이들의 영입에 큰 도움을 주었다. 문화부가 주도하여 시범운영 되었던 패스(pass Culture)는 우리의 큰 자산이었다"고 했음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문화 파트너들은 연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 13일에 발표를 했음.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맞춰 메세나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떤 메세나는 피해가 큰 분야인 보건 분야 혹은 사회, 교육 분야로 활동을 전환했고, 다른 메세나는 활동을 유지하거나 연기, 또는 더 확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 파트너들은 연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음

또한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장관은 지역 경제 조정 국면에서 문화 분야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상기시키며 다수의 경제 및 법률 기관이 체결한 국가 의정서 갱신 및 메세나와 지역 문화계의 네트워크 강화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바슐로 장관은 프랑스 사회가 문화 메세나를 하는 것은 문화가 감정의 무안한 원천이며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 사회 통합의 강력한 요소이자 우리의 공동의 삶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공감대라고 강조했음

그림 1. 2021년 문화 메세나에 대한 올리비에 마에이 장관 발표 모습

(사진 : ⓒ Ministère de la Culture)

원문출처

프랑스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2021-10-13), Solidarity, social, territories ... the new challenges of cultural sponsorship.
(https://www.culture.gouv.fr/Actualites/Solidarite-social-territoires-les-nouveaux-enjeux-du-mecenat-culturel)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기(2021). "프랑스의 문화메세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2021-1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동기 dongkison@hotmail.com

작성: 2021.12.20.

##프랑스 #문화메세나 #메세나 #코로나19 #위기 #문화적후원